

## 2018년 농가소득 10% 증가, 평균 42,066천 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내용

- 2018년 농가소득은 평균 42,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농업소득)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
    - \* 수확기 산지쌀값: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 \*\* AI 발생 건수: ('16/'17) 383건 → ('17/'18) 22건 → ('18/'19) 0건
  - (이전소득) 직불금(밭·조건불리·친환경) 단가 인상\*,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 밭·조건불리직불: ha당 5만원 인상, 친환경직불: ha당 10~20만원 인상
  - (농업외소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 증가
  
-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농가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함에 따라 농가부채도 전년 대비 26.1% 증가
  - 고정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32.3%)', '기계기구비품(46.5%)'이 증가하고, 농업용 부채(28.9%)가 증가하여 농업의 고정자본 형성

- ◎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로 2018년에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농가소득은 평균 42,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함
  - 특히, 지난 10년 간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하던 농업소득이 '18년 1,292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온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직불금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강화 등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한 결과, 농가의 이전소득이 1,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짐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8/’17)	
					구성비	구성비		
농가소득	34,950	37,215	37,197	38,239	100.0	42,066	100.0	10.0
농업소득	10,303	11,257	10,068	10,047	26.3	12,920	30.7	28.6
농업외소득	14,799	14,939	15,252	16,269	42.5	16,952	40.3	4.2
이전소득	6,819	7,906	8,783	8,902	23.3	9,891	23.5	11.1
비경상소득	3,029	3,114	3,095	3,022	7.9	2,302	5.5	-23.8

- ◎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등으로 농업총수입이 경영비보다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8.6% 증가

\* (증가액) 농업총수입 518만원(16.9% ↑), 농업경영비 230만원(11.2% ↑),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17) 32.9% → (’18) 36.1%

- 농작물수입은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3% 증가

– 쌀(미곡)은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던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선제적 시장 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24.5% 증가함(’17: 5,426천원 → ’18: 6,756)

\* 수확기쌀값: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 채소·과수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사전적 수급조절 장치 강화, 대안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각각 14.8%, 11.7% 증가함

\* 품목/물량: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8% → (’18) 고추, 대파 추가 / 10%

- 축산물수입은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24.9% 증가

\* AI 발생: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 ◎ 농업외소득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 4.2%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증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17) 1,397명 → ('18) 1,524명

\*농촌관광객 수: ('17) 1,111만명 → ('18) 1,237만명

- ◎ 이전소득은 직불제 단가 인상, 농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라 공적보조금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직불제 단가를 ha당 5~20만원 인상

\* 밭고정직불금(만원/ha): ('17) 45 → ('18) 50

\* 조건불리직불금(만원/ha): ('17) 농지 55, 초지 30 → 60, 35

\* 친환경직불금(만원/ha): ('17) 유기 60~120, 무농약 40~100 → ('18) 70~140, 40~120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인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

\* 농업인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17) 386천원/월 → ('18) 399천원/월

\* 기초연금 지급 소득기준액 완화(단독가구 기준): ('17) 119만원/월 → ('18) 131만원/월

\* 기준 연금액 증가: ('17) 20만 6,050원/월 → ('18.9) 25만원/월

- 농지연금 상품 개발, 홍보 강화 등으로 신규가입 활성화

\* 농지연금 신규가입/누적 건수: ('17) 1,848건/8,631건 → ('18) 2,652건/11,283건

\* 농지연금총지급액: ('17) 673억원 → ('18) 1,003억원

- ◎ 한편, 농가의 평균자산은 감소,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지규모가 클수록, 축사 등 자본집약적 품목일수록 상대적으로 농가부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 팜 등 농업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용 부채가 28.9% 증가하였음

- 이를 통해 농업분야의 고정자본 형성 효과가 발생함

\* 고정자산 증 건물 및 구축물(32.3%), 기계기구비품(46.5%)이 크게 증가